

▲ 클럽정보

내정보

빛나는 그룹

- 클럽장
- 개설일 2009.04.06 [소개]
- 회원수 21 [주소록]

클럽초대

클럽 글쓰기

- 전체글보기(47)
- 전체사진보기(1)
- 사진 슬라이드 보기

프리트

공지사항

- 소근소근
- 난나가누군지몰라
- 수다 한판
- 신문고
- 특별한그녀들

- 수업권
- 반성폭력
- 복지
- 2009여성현실제
- 2009 WomFilmFestival
- 자료실

전체댓글

내글댓글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발자국

클럽회원 파도타기 ----- ▼

클럽탈퇴

전체글보기: 공지사항

저희는 중선관위를 사퇴합니다(총여/사범/사회)-사퇴 입장서

주소복사

2009.12.11 14:09

조회 14

중선관위 사퇴에 대한 입장서

42대 총학생회 12월 재선거에 또 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 9일 오후 네시 반 즈음에 경영관, 호암관 옥상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수백 장이 날려지는 일이 있었고 그 비슷한 시간에 경제관 2층 투표소에서 자신이 선관위라고 사칭하고 투관위에게 전자인명부 학번,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 전자인명부에 동시 접속해 300여명의 투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들로 오후 7시에 중선관위 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투표과정 속에서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총학생회를 뽑는 선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모두 잃었다고 판단을 하고 더 이상의 선거 강행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12월 재선거는 무산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긴 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의무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학생회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생회를 세워야 하는 것으로 목적이 전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선거 강행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선본과 중선관위 사이의 합의는 유효하고 그 효력이 선거의 정당성에 우선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결국 의결을 통해 선거 강행이 결정되고 바로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대로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42대 총학생회 선거를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총학생회를 세우는 총학생회 선거는 학우들의 신뢰 속에서 공정한 절차 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선거로 인해 학우들에게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12월 재선거는 지난 선거에 대한 입장과 해명이 없이 학우들에게 중선관위의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한 채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정선거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강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강행은 더더욱 학우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고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정당성마저 잃어버리는 일이기에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로서 투관위에 대한 책임, 총학생회를 끝까지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학우들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22대 총여학생회장 |

27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

(전) 39대 사범대 학생회장